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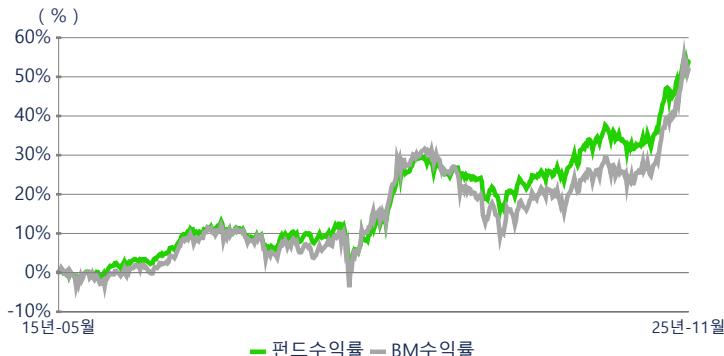
베어링자산운용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 2025-5030618호 (2025.12.02~2026.12.01)

2025년 11월 30일

투자전략

베어링 고배당40 플러스 증권자투자신탁은 국공채에 주로 투자하는 채권형 모투자신탁에 60%, 배당주에 주로 투자하는 주식형 모투자신탁에 40% 수준에서 투자합니다.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자본이득, 배당수익 및 이자수익 추구를 추구합니다.

펀드 운용성과



* 최초 설정일이 2015.05.08인 Class A 수익률 기준입니다.

* 운용성과, 수익률을 그래프, 누적 수익률의 성과는 세전 수익률로 미래 운용 성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.

* 각 펀드 클래스의 보수 및 수수료 차이로 인해 운용 실적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.

기간별 수익률(%)

| 구분 | 1개월 | 3개월 | 6개월 | 1년 | 3년 | 설정이후 |
|-----------|-------|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Class A | -0.49 | 5.68 | 11.18 | 15.81 | 26.72 | 53.88 |
| Class Ae | -0.47 | 5.75 | 11.31 | 16.09 | 27.68 | 54.91 |
| Class C | -0.52 | 5.58 | 10.96 | 15.35 | 25.23 | 47.54 |
| Class C-F | - | - | - | - | 0.64 | 8.95 |
| Class C-P | -0.52 | 5.61 | 11.01 | 15.47 | 25.60 | 44.76 |
| Class C-W | - | - | 1.43 | 6.16 | 17.38 | 34.93 |
| Class Ce | -0.49 | 5.70 | 11.21 | 15.87 | 26.92 | 51.96 |
| Class S | -0.47 | 5.76 | 11.34 | 16.15 | 27.87 | 61.10 |
| Class S-P | -0.46 | 5.77 | 11.36 | 16.19 | 28.01 | 57.49 |
| BM | -1.89 | 8.55 | 16.48 | 22.67 | 30.23 | 53.19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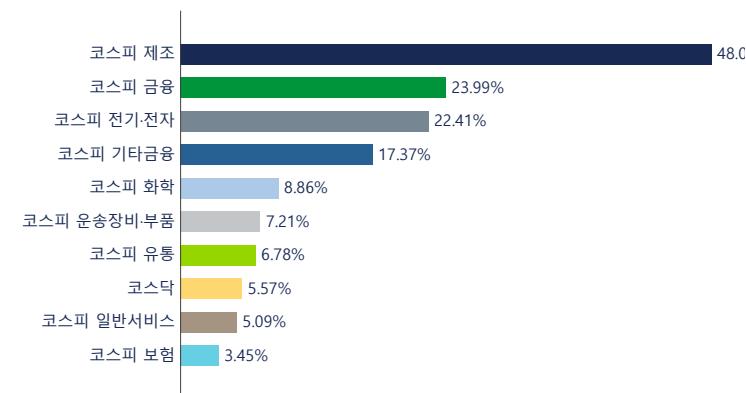
* 각 펀드 클래스의 보수 및 수수료 차이로 인해 운용실적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.

상위 10개 보유 종목

| 종목 | 구성비율(%)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
| 국고02250-2806(25-4) | 33.08 |
| 국고02875-2712(24-12) | 9.65 |
| 한국전력1466 | 9.56 |
| 삼성전자 | 6.22 |
| 국고02500-3009(25-8) | 1.86 |
| SK하이닉스 | 1.32 |
| 현대차2우B | 0.98 |
| KT&G | 0.85 |
| POSCO홀딩스 | 0.73 |
| 신한지주 | 0.68 |

* 자펀드 기준으로 산출되었습니다.

상위 10개 업종별 보유 비중



* 업종별 보유 비중은 주식 내 비중으로 산출되었습니다(모자형 펀드의 경우 모펀드 기준 산출).

자산구성

| 자산 | 구성비율(%) |
|------|---------|
| 채권 | 55.78 |
| 주식 | 37.83 |
| 단기상품 | 6.40 |

* 자산, 주요종목, 업종별 비중은 2025.11.30 기준입니다.

[투자시 유의사항]

- ※ 투자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, 투자전 (간이)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
- ※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.
- ※ 집합투자증권은 자산가격 변동, 환율 변동,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(0~100%)이 발생할 수 있으며,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.
- ※ 증권거래비용, 기타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※ 종류형 펀드의 경우, 종류별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·수수료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- ※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.

베어링자산운용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 2025-5030618호 (2025.12.02~2026.12.01)

2025년 11월 30일

펀드개요

| | |
|---------------|--|
| • 순자산* | 8억 1,450만원 |
| • 기준가 | 1403.67원 |
| • 펀드설정일 | 2015.05.08 |
| • 신탁업자 | 우리은행 |
| • 집합투자업자보수(연) | |
| 종류 A: 0.987 | (운용:0.45, 판매:0.5, 신탁/사무:0.034 기타:0.003) |
| 종류 Ae: 0.737 | (운용:0.45, 판매:0.25, 신탁/사무:0.034 기타:0.003) |
| 종류 C: 1.387 | (운용:0.45, 판매:0.9, 신탁/사무:0.034 기타:0.003) |
| 종류 C-P: 1.287 | (운용:0.45, 판매:0.8, 신탁/사무:0.034 기타:0.003) |
| 종류 Ce: 0.937 | (운용:0.45, 판매:0.45, 신탁/사무:0.034 기타:0.003) |
| 종류 S: 0.687 | (운용:0.45, 판매:0.2, 신탁/사무:0.034 기타:0.003) |
| 종류 S-P: 0.647 | (운용:0.45, 판매:0.16, 신탁/사무:0.034 기타:0.003) |
| • 투자위험등급 | 4등급(보통위험) |
| • 선취판매수수료 | 0.500% (A) 이내, 0.250% (Ae) 이내 |
| • 후취판매수수료 | 0.150% (S) 이내-3년 미만 환매시 |
| • 환매수수료 | 없음 |
| • 환매대금지급기준 | 15시 30분 이전 : 제2영업일 기준가격으로 제4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15시 30분 경과 후 : 제3영업일 기준가격으로 제4영업일에 환매대금 지급 |
| • 벤치마크 | 국고채2~3년 X 60% + KOSPI X 40% |

* 순자산 규모는 운용펀드 기준

※합성보수비용은 피투자펀드 총보수비용 포함

※설정 1년 미만인 클래스의 경우 기타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음

※직전 회계연도 증권거래비용: 종류 S(0.03%), 종류 A(0.029%), 종류 C(0.029%), 종류 Ae(0.029%), 종류 C-P(0.029%), 종류 S-P(0.029%), 종류 Ce(0.028%), 종류 C-W(0.02%), 종류 C-F(0%)

※직전 회계연도 증권거래비율은 추정치를 사용하였기에 실제 총보수비용 비율은 상이할수 있으며 설정 1년 미만의 펀드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

투자자 유의사항

- 이 운용보고서는 베어링자산운용에서 작성한 것으로 펀드 가입자의 상품 운용에 대한 이해를 돋기 위해 작성, 배포되는 자료입니다.
-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투자 권유를 위한 광고물로 활용될 수 없습니다.
- 보고서에 제시된 내용과 의견은 당사가 신뢰할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자료의 정확성, 완전성과 공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
- 보고서의 자료는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 소재의 증빙 자료로 사용될 수 없으며 당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어떠한 형태나 방법으로 내용의 무단복사, 사진복사 또는 복제될 수 없습니다.
- 증권거래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연금펀드의 경우, 중도해지나 연금 이외의 방법으로 수령 시 기타소득세, 해지 가산세 부과 등 세제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과세율과 과세기준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소득공제의 기준 등은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며 향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.
- 자산, 주요종목, 국가별 비중은 운용펀드 내 비중으로 작성되었습니다 (모자형 펀드의 경우 모펀드 기준 산출).
- 해당 자료는 펀드의 단순 정보제공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. 따라서 펀드의 투자광고 및 투자권유를 위해 작성된 자료가 아니며, 베어링자산운용 홈페이지 게시 외에는 본 펀드에 가입하지 않은 고객에게 투자광고 또는 투자권유의 목적으로 제시되거나 제공될 수 없습니다.



BARINGS.COM

베어링자산운용

[투자자 유의사항]

- ※ 투자는 해당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, 투자전 (간이)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.
- ※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.
- ※ 집합투자증권은 자산가격 변동, 환율 변동,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(0~100%)이 발생할 수 있으며,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.
- ※ 증권거래비용, 기타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※ 종류형 펀드의 경우, 종류별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·수수료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- ※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.